

신뢰를 회복하는 새 정치의 첫걸음

대통령선거인단선거 및 대통령선거일 공고 담화

1981년 1월 24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역사적인 제5공화국의 출발점이 되는 대통령선거 관계일자를 오늘 공고하였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일정을 이렇게 앞당기게 된 것은 개혁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헌정질서의 안정을 하루빨리 실현해야겠다는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여망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모두 경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본인이 누차 약속해온 정치일정을 조기에 실천하는 것으로서 공약이행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깨어져 불신받는 정치를 낳았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정치일정에 관한 정부의 공약이행이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새 정치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는 온 국민이 대망하는 위대한 제5공화국의 초대정부를 결정하는 민족적 대사로서 새 공화국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확립하여 새 질서를 안정시키는 초석을 놓는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민주제도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참된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름하는 정치근대화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결과에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정치사는 선거의 본질과 나아가 민주주의제도를 파괴하는 부정과 타락의 선거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구시대의 비리는 영원히 새 역사에 기록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권에 의한 민의의 조작, 금력에 의한 주권의 타락, 선동에 의한 국기의 혼란 등이 재연된다면 새 공화국은 역사적인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새 역사, 새 시대, 새 정치를 역설해 왔던 주창자로서, 그리고 새 정치의 관건인 선거의 관리를 담당할 정부의 대표자로서 이번 선거를 양심적으로 관리하여 오점과 잡음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공명선거를 이룩하려는 굳은 결의에 차 있습니다.

나 자신 한 정당의 대통령후보로 지명되어 있지만 정부 및 일선 관공서의 인력과 비용과 권능이 나를 돕는데 이용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선을 위한 노력보다 공명선거를 실시하려는 노력을 더 우선시킴으로써 역사에 기록될 만한 모범선거의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결심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를 명실상부하게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의 시종을 공명정대한 분위기로 가득차게 하는 것이 선결요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주권을 행사할 유권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과연 새 시대가 다르다」고 하는 자부심을 이번 선거를 통해 과시하도록 노력합시다.